

제6장 한산면(韓山面)

한산면은 세모시와 소곡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고장이다. 한산세모시는 여름철의 고급 옷감으로 깨끗하고 청초함을 자랑하는 품위 있는 천연 옷감이다. 따라서 여인네들이 모시옷을 입고 나서면 그 청초한 멋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남성들은 그 청백한 멋과 고상한 기풍이 주변사람마저 즐겁게 한다.

한산소곡주 또한 백제시대의 명주로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술이며, 처음 입에 대면 달큰한 맛에 계속 마시다가 일어설 수 없게 되어 일명 앉은뱅이 술이라고도 한다. 옛날 선비가 과거보러 가다가 한산에 묵게 되어 소곡주를 마셨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 결국 과거시험을 놓쳤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술이다.

한산면은 백제시대 마산면에 소속됐던 곳이며,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 소속이었고, 고려 초 한산현이라 하여 임천에 속했다가 조선 초 1413년(태종 13) 한산군 소속이었다. 조선 말 한산읍의 북쪽에 위치했다 하여 북부면이라 칭하며 산성 외 15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상면의 송림리 외 19개 동리와 동하면의 화산 외 7개 동리, 임천군의 홍상면 포촌리, 교항리, 고읍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한산면이라 했다. 죽촌, 종지, 호암, 성외, 동산, 지현, 원산, 여사, 나교, 동지, 송림, 축동, 송산, 송곡, 단상, 단하, 마량, 연봉, 온동, 용산, 신성 등 21개리를 개편 관할했으며, 그 후 1973년 7월 1일 송림리를 마산면에 편입시키고 화양면의 구동리를 흡수하여 현재 법정 21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종지리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고려시대 대학자 목은 이색이 태어난 고장이고, 건지산성, 봉서사, 한산향교, 지현리 3층 석탑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충절과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또한 모시관 옆에는 이상재 선생 기념비와 신석초 시인 시비, 임벽당 시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총 25.04km²의 면적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1,480가구 3천3백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현리에는 면사무소, 한산치안센터, 우체국, 농협 등이 있고, 한산초등학교와 한산중학교,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등 초, 중, 고등학교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

매 1일과 6일 등 닷새 만에 지현리 시가지에서 5일장이 서는데, 여름철에는 모시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상인들이 찾아든다. 특히 해뜨기 전 어스름이면 인근 지역에서 모시와 모시굿을 생산한 아녀자들이 모여들어 새벽 모시장을 형성하는데, 다른 5일장에 비해 매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지현리에 있는 한산모시관과 영화 JSA의 촬영지인 신성리 갈대밭은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모시관에서는 매년 모시문화제가 열리고, 신성리 갈대밭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서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대보름제가 치러진다. 특히 이 고장은 바디장, 모시, 소곡주, 공작선, 저산팔읍길쌈놀이 등과 관련된 무형문화제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서천군에서 가장 큰 절인 봉서사에서는 매년 사월 초파일에 군내 많은 불자들이 모여 연등제를 갖으며, 지현리에 위치한 건지산은 한동안 백제시대 주류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치적으로 동쪽은 신성리가 동경 126°5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호암리가 동경 126°48'에, 남쪽은 용산리가 북경 36°03', 북쪽으로 원산리가 북경 36°07'에 자리 잡고 있다.

-지현리(芝峴里)



지현리 마을 전경 및 3층 석탑

지현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 소속이었고, 고려 때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이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북부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촌리, 서외리, 서내리, 내상리와 내하리, 산음리 각 일부를 합하여 건지산 고개의 이름을 따서 지현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읍내에서 서쪽에 있는 마을을 향교골, 생교굴, 교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탑거리, 탑골, 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을에 석탑이 있어 그렇게 지칭하게 된 것이고, 응지편, 산음이라 하는 지역은 마을이 웅달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조선시대 감옥이 있었다 해서 옥거리, 1800년대부터 모시장터였다는 한산치안센터 앞 저갓거리, 한산초등학교 앞 구장터, 모시협동조합이 있는 부근을 새장터라고 하며, 성밖에 있다 해서 성너머라 부르는 지역 등이 있다.

주변의 고개를 넘어 다른 마을로 가는 고개가 여러곳 있는데, 영모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영모재, 생계골 서쪽의 망덕산에 위치한 망덕이 고개, 광암리로 넘어가는 가재골재와 돼지고개, 구동리에서 일광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빚고개, 화양면 대등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한저울 고개 또는 마루재 등으로 부를 만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형성된 지역이다.

지현리는 1, 2, 3리로 나뉘어지는데 1리는 시가지 중심가로 저자거리, 옥거리 등이며, 2리는 향교골, 탑거리, 3리는 응지편을 말한다.

지현리에는 한산모시관이 있어 매년 그 곳에서 모시문화제를 개최하며, 또한 백제의 명주로 알려진 한산소곡주 공장이 있어 지역의 특산품으로 외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지현리는 유향(儒鄕)이라고 말한다. 민향(民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한산에서만 지낼 수 있었던 우리의 고유 문화를 간직하면서 모두가 한산모시나 한산소곡주 같은 특수한 토산품을 발달시키고 독특하게 서민적 전통을 지녀왔기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령산맥의 남쪽에 위치해서 서해안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는 서편 문화권이 지현리에서 철저히

차단되어 지현리 문화는 건지산 문화권이라는 독특한 호칭을 갖는다.

지현리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는가 하는 것은 청동기시대로 보이는 무문토기류의 파편이 발견됨으로써 기원전 100~300년쯤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백제가 웅진(공주)에 환도하기까지 백제의 행정적 지배보다 지방 토호들의 권력 지배가 강했던 지현리가 차츰 백제의 서쪽 중요한 위치로 빛을 보게 된 것은 무령왕 때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그 무렵 백제를 침략하려는 신라와의 접경지인 탄현에 성을 쌓은 것과 동시에 한산에도 건지산성을 쌓았고, 건지산성이 백제 서해안의 새로운 교두보로 등장함에 따라 지현리 일원에 많은 가옥이 들어섰으며, 한산이 고을로 승격할 수 있는 큰 마을로 등장했다.

지금은 매립하여 그 흔적이 없지만 한산 모시장 아래에 큰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 피는 연꽃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던 정자 취읍정이 있었다. 취읍정은 고려 성종 이후 정착한 한산 이씨의 선조들이 즐기던 연못이었으며, 연못이 마치 명나라의 연지를 닮았다 해서 가정 이곡이 특히 많이 소유했던 연못이라 한산고을에서는 매우 아끼던 연못이었다.

취읍정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많은 인재들이 즐기던 곳이며, 연산군 이후에는 한산 이씨의 명문이 있는 취읍정이 유명해서 과거보러 한양 가는 선비들이 길을 돌아 지현리 연지 가까이 와서 소곡주를 마시며 쉬어 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현리 서북쪽에 우뚝 솟은 건지산에 있는 성터를 건지산성이라 한다. 성안에는 샘이 일곱 군데 있었으며, 못이 하나 있고 군창지도 있었다 한다.

한산읍성은 건지산성이 있는 건지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록의 끝머리 구릉 쪽에서 빗고개 북쪽의 산록 끝에 있는 구릉지대를 연결한 상태로 쌓여진 성이다.

지현리 탑골 서쪽 서망덕 정상에 조선시대의 사직단 터가 있다.

향교골에 자리 잡고 있는 한산향교는 조선 초기 건립되어 동산리 유산에 있었으나 그 후 현종 10년(1669)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고, 1950년 6·25동란 때 소실된 것을 그 뒤 복원했다.

지현리에는 한산 이씨 호장공파의 시조 이윤경의 묘가 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호장공의 묘소는 한산고을 오른쪽에 있다가 관부를 옮겨 세울 때 관부의 담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지현리 탑골에는 지현리석탑이 있는데, 이는 이윤경 묘역 우측으로 전면에 있으며, 현재 탑의 기단은 없어졌고 대신 기단 갑석이 맨 아래에 있다. 호장공 묘를 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탑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한산 모시관

한산모시관 옆에는 사회운동가였던 월남 이생재 선생 추모비와 신석초 시비, 임벽당 시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 동산리(童山里)

동산리는 동산과 유산으로 나누어지며, 백제시대 군사와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열아홉 명의 동자가 묻혔다는 전설 속에서 동자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동산리와, 산이 아름답고 땅이 기름져서 산과 들이 잘 조화된 마을이라 유산(由山)이라 부르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마을에 우뚝 솟아있는 축봉산은 지금도 갖가지 전설을 안고 있다.

동산리는 백제와 신라시대 마산현에 속했다가 고려 때 임천에 속한 한산현 지역이었다. 그 후 조선시대 한산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 한산군 북부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동산리, 유산리, 대하리, 산음리 각 일부를 합하여 동산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마을 서남쪽으로 화양면으로 넘어가는 일광재가 있고, 북치며 싸우던 동자들이 묻혀 지금도 비가 오면 땅속에서 북소리가 난다는 전설과, 동자가 북을 치는 형상이라 해서 동자북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마을에 있는 축봉산에 묘를 쓰면 마을 청년들이 죽는다고 해서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묘를 쓰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설이 나돌아 30여 년 전에 인근 지역에서 몰래 암매장을 했던 일이 있어 소동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상주가 손이 발이 되도록 벌여 해결되었지만, 지난 1993년도에 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사고 몰래 묘를 쓴 사람이 있으면 파묘하라고 일간지에 공고까지 했다니 주민들은 지금도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을은 2008년도에 서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역사 계승 시설 및 마을회관 기공식을 갖고, 앞으로 마을이 갖고 있는 가양소곡주와 모시를 비롯한 문화역사 자원의 의미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해 나간다.

동자북의 북소리라는 전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옛날 건지산에서 전쟁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있었다. 사비성이 나당 군에게 점령됐으며, 의자왕이 도망가다 돌아와서 항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슬퍼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그들은 싸움놀이를 더욱 열심히 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 왕자에게 전해져 왕자는 직접 싸우는 연습을 하는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내렸다. 그 후 그들은 왕자를 지키는 군사가 되어 왕자를 지켰으나 전세는 불리해져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드디어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 왔다.

그들은 어린 몸이지만 열심히 싸웠다. 얼마동안 싸우다가 동자북 뒷산에 올랐다. 그들이 산에 올랐을 때는 대부분이 죽고 부상당한 아이들까지 모두 열 아홉 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 곳이 자신들이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흙을 파고 돌을 놓아서 벽을 쌓았다. 동이 트자 적군이 몰려왔고 그들은 용감히 싸우다 그 곳에서 모두 전사했다.

싸움이 끝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역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바람도 세게 불었다. 바람과 비와 천둥 속에서 산의 모양이 차츰 변해갔다. 열 아홉 명 아이들의 시체는 자연스럽게 땅속에 묻히게 되었다. 그들의 시체가 묻히자 비도 멈췄다. 이렇게 해서 주류성의 어린 동자들 열 아홉 명은 땅에 묻혀갔다. 이 산은 당초에 상당히 높은 산이었는데 동자들이 묻힌 뒤부터 차츰 낮아졌다고 하는 전설이다.



동산리 전경

-성외리(城外里)

성외리는 오라리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백제 때 마산현이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에는 한산군이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북부면의 지역으로 외상리, 외하리, 종지리 일부를 합쳐 한산읍성의 북문 밖에 있다 하여 성외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당터 동쪽에 있는 마을을 뽕밭이라 하는데, 한산읍성의 북문밖에 있다 해서 북문밖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뽕밭이, 뽕밭이라고 한다.

오라리는 송곡리와 종지리에 걸쳐있는 들을 오라릿들이라고 하는데 그 들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르며, 오라리들은 한산팔경 중의 하나인 압야권농(鴨野勸農) 이라 해서 추수 끝난 들녘에 기러기 떼가 내려와 쉬었다 날아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으뜸 경치로 꼽기도 했다.

성외리에는 한산중학교와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건지산 중턱에서 당제를 지냈었다. 이곳에는 당집터가 남아있으며 당집은 기와집이었고 건지산을 뒤로 하여 한산읍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한다. 1925년경에 당집은 없어졌고 돌담이 일부 남아있었다 하며 주변에는 기와편이 산재해 있었다. 당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당쌌이 지척골 건지산 아래에 남아있는데, 수량이 풍부하여 이 쌌물만 사용했다 한다. 당쌌은 특히 피부 질환을 낫게 한다고 하여 주변 부인들이 이곳에 모여 목욕을 했는데, 이를 쌌물 맞으러 간다고 했으며, 오월 단오날에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했다. 평상시에도 부정한 사람들은 당쌌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한다. 지금도 성외리에는 당나무가 두 그루 있다.

-호암리(虎岩里)

건지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호암리는 건지산 능선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는 범바위로 인해 마을 이름이 범바위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호암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었으며, 신라시대에도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고,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한산군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북부면의 지역으로 범바위가 있다 해서 호암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호암리, 산성리를 합하여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산성안에 마을이 있다 해서 산성안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주로 범바위 또는 범배라고 부르는데 범배에서는 범바위가 마을 쪽에서 보이면 마을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1968년 조림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숲이 울창하여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을에서 농약을 올리면 호랑이가 도망간다고 해서 농약을 올리지 않는다는 설도 전해오고 있다.

건지산 기슭에는 국가가 사적 60호로 지정한 건지산성이 있고, 서천군에서 가장 큰 사찰이며 대웅전 삼존불상이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봉서사가 자리 잡고 있다.

봉서사 아래 건지산 자락에는 옛날 곡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밭에서 얼마 전까지 불에 탄 쌀이 발견됐다고 한다.

마을에는 정장로씨가 사비로 건립하여 집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한 모자원이 있어 무의탁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다.

- 죽촌리(竹村里)

죽촌리는 죽동과 고촌으로 나누어진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던 이 마을은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에 소속되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북부면의 지역으로 1914년에 죽동리를 합쳐 죽촌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죽동은 대실, 망굴 등으로 불리는 지역이 있으며, 대실은 마을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죽촌리의 으뜸 마을이다.

대실 북쪽에 있는 산을 금반형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는 금반형(金盤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대실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이울이라 한다. 또한 고촌이라고 하는 마을로 기린봉을 주산으로 하고 그 아래에 형성된 마을로 고려 삼은 중의 한 사람인 목은 이색이 출생한 마을이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이 부근의 나무가 말라죽더니 그가 태어난 후 다시 나무가 파릇하게 되살아났다고 해서 고촌(枯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울 동쪽으로 있는 산을 누에말재라 하는데, 산 모양이 누에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잠두산이라고도 한다. 이울 아래쪽 마을을 아래에 있다 해서 아랫말, 위쪽에 있는 마을을 윗말 또는 상촌이라 한다. 이울 북쪽으로 뽕재라는 산이 있고 기슭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말처럼 생겨 말바위라 하며, 뽕재 너머에는 약샘이 있어 이 마을 사람들과 한산 주변 사람들이 뽕너머 약샘으로 물 맞으러 많이 다녔다.

웃말 북쪽으로 와룡송(臥龍松)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용이 승천한 나무라고 전해진다.

한산읍내에서 마산 쪽으로 가다 보면 고촌 진입로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모새다리라고 한다. 이는 냇물에 모래가 많이 떠 내려와 쌓여있음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다리는 마산면 신장리 독립만세운동 때 군중이 이곳까지 밀려왔다가 왜병들에게 저지당했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웃말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을 안산이라 하며, 이 안산 꼭대기에는 조선시대의 여단터가 있다고 한다. 여단은 여신 즉 질병신(疾病神)을 제사 하던 단이며, 또한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령하였던 단

이다. 전란으로 인하여 죽은 무명 장졸을 무주고혼으로 보고 전쟁 후 유행적인 질병이 돌면 전사자의 영혼이 여신화 하여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죽촌리에는 효자 이종선 효자문이 있다. 이 효자문은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당시 너무 낡아서 1962년에 다시 세워졌다 하며, 한산 이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종지리(種芝里)

한산면 소재지에서 마산 쪽으로 1km쯤 가면 오른쪽으로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표지판이 보인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면 초입에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와 유물전시관이 있다.



월남이상재 선생 생가

종지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 한산군이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북부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종지처럼 생겼다 해서 종지울 또는 종지동, 종동이라 했는데, 1914년 신동리와 종지리 일부를 합하여 종지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종지 서쪽에 위치한 마을을 천왕사라고 하는데 마을에 천왕사(天王寺)라는 절이 있었다 해서 천왕사 또는 천왕절이라고 하며, 동남쪽 마을은 새로 생겼다 해서 새터, 신기라고 부른다.

한산 이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월남 이상재 선생이 출생한 마을이라서 그런지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운동가가 많이 배출되었다. 종지 교회 주체로 독립운동가 임인두, 박재엽 선생 등이 3·1운동 때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여 마산 신장리에서 독립만세가 일어 날 때 배포했다고 한다.

월남 이상재 선생 유물전시관은 1991년 7월 18일 생가지 앞에 건립되어 개관됐다. 건평 15평의 전시관에는 월남의 육필, 문방사우, 서적, 사진 등 유물 2백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88호인 바디장 구진갑 씨가 바디를 제작하며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종지리 전경

-송곡리(松谷里)

송곡리는 가그말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백제 때와 신라 때 마산현에 속했던 마을이다.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고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송하리(松下里)와 오곡리(烏谷里)를 합쳐 송곡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가그말은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고양이와 단 두 식구였다고 한다. 하루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서 트랙에 떨어졌는데, 고양이가 그 까마귀를 잡아먹으려 하므로 노인이 그 까마귀를 구해주었다. 그 후 까마귀가 그 집 근처에 많이 날아와 살았는데, 그 노인이 죽자 까마귀들이 묘를 지켜주었다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오곡(烏谷)이라 하다가 가그말이라고 변해서 부르는데, 마을 지형도 까마귀(가그매)처럼 생겼다 한다.

가그말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아래가그말,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을 위가그말로 불린다.

위가그말 동쪽으로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당고개라 한다. 이는 옛날에 이곳에 성황당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으며 소원을 빌던 고개라 해서 연유된 것이며, 조선 초 세조 때 세조의 공신 홍윤성(洪允成)의 행랑들이 행패가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운집하여 의거하려 했던 자리였다고도 전한다.

위가그말 북쪽으로 송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소나무가 무성한 마을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외리의 오라릿들과 연하여 있는 들이 있으며,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오리들이 많이 모여드는 들이라서 오라릿들, 압야라고 부르는 들이다.

독립운동가 이승달 선생이 1898년 이 마을에서 출생했다. 당시 송곡리에서 거주하던 선생은 독립운동가 송기면 선생 등과 마산면 신장리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승달 선생은 그 공훈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바 있다.

-송산리(松山里)

산이 겹겹이 싸안아 천연 요새지처럼 아늑하게 펼쳐진 마을 송산리는 백제 때 마산현이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 한산군 동상

면의 지역이었는데, 산에 소나무가 많았으므로 솔매, 솔피 또는 송산이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상리, 송중리, 나교리 일부를 합하여 송산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월성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참새골 또는 찬물이 나오는 샘이 있다 하여 찬샘골이라 하는 지역에 최소형(崔巢形) 이라는 명당이 있다 하고, 남쪽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해서 쇠재라고 하는 지역에는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찬샘골 동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차독배기라 하며, 이는 마을에 차돌이 박혀 있다고 하여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솔피 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잣말 또는 영촌이라 부르며, 재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솔피 북쪽으로 있는 마을을 음지편, 위쪽 마을을 윗골 또는 상곡이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솔피에서 모퉁이를 돌아가서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을 군말, 군촌 이라고 부르며, 이는 옛날 군사들이 진을 쳤을 때 부른 마을 이름인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음지편 건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을 건너마을이라고 부른다.

월성산은 원래 영똥산, 어성산이라고 부르던 산으로 그 산아래 미륵밭이라는 곳에 소처럼 생긴 미륵바위가 있었으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를 전 이장인 박우천 씨 고조부가 목에다 동아줄을 걸어 끌고 와서 지금의 종산에 세워 놓았다고 한다.

송산리에는 고령 박씨가 90%정도 살고 있는데, 임진왜란 시 난을 피해 이곳에 정착했다 하며, 축동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부자 마을이었다 한다. ‘쌀밥 먹으려면 영똥산 밑으로 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다 한다. 그러나 저수지가 생기고 그 여파로 인해 실의에 빠져 고향을 등진 사람이 많았다.

구한말 이전에 영똥산 중턱에 강당이 있어 배움의 터전으로 삼았고 그 이후 일제 초·중기에 마을에 학당이 운영되었으며. 마을에 사는 박현구, 박승구, 박우철, 차석규 씨 등 유독 효자상을 받은 사람이 많은 마을이다. 또한 일제 때 항일투쟁을 한 박재엽 선생이 이 마을 출신이다.



송산리 전경

-축동리(杻東里)

축동리는 싸르매라고 불리며 축동저수지가 마을 면적의 3분의 1쯤 차지하고 있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이었으며, 고려시대 임천에 속한 한

산현이었다. 조선시대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싸리나무가 많으므로 싸리매, 축산, 축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축동리, 축산리 일부를 합하여 축동이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싸리매 북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미럭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미룩이 서 있다 해서 미룩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미럭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사당골과 송림 사이에 광대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을 사당골이라고 부르며, 옛날 사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싸리매 북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을 새터말 또는 새터말이라고 부르며, 싸리매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해서 안골이라고도 한다.

또한 싸리매 북쪽으로 절골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옛날 마을에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절터는 마을 뒤편 일명 깨재산 아래에 있다.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스님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계단밭이 있다. 절터로 추정되는 곳에는 조선 시대의 기와로 보이는 청색에 어골문이 새겨진 기와편과 인화문 분청사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분청사기는 인화문이 주류를 이루며, 와편과 자기편으로 이루어 볼 때 조선 초기에 있었던 사찰로 추정되나 자세한 사찰의 규모나 연대 등은 알 수 없다. 절터의 크기는 약 2백평 정도이며, 한산지방의 중요한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축동리 전경

- 원산리(院山里)

원산리는 원산과 야인으로 나누어지며, 마산면과 부여군 양화면의 경계로 한산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백제 때는 마산현 소속이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이었으며, 고려 때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산군에 속했고,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마을에 있는 바위를 경계로 한쪽은 한산군, 또 한쪽은 임천군으로 경계를 가늠했다. 또한 조선시대 이곳에 간법암원이 있었다 하여 간법암원(看法岩院) 또는 원매, 원산이라 했다.

원(院)은 험준한 산길을 넘어가는 지점이나 나루터 부근 또는 행려인(行旅人)이 길을 가는데 불편을 느끼는 곳에 설치되었으며, 원에는 원창시설(院倉施設)이 있어서 원주(院主)가 행려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던 곳이다.



원산리 전경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야인리, 신곡리를 합하여 원산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원래 서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신곡이라 부르며, 신계골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곡 동남쪽으로 마을이 있어 이 마을을 가남바위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을 북쪽 바위가 한산군과 임천군의 경계를 가늠한다 해서 가남바위, 가늠 바위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 바위는 옛날 장사들이 돌팔매 시험을 하다 던진 바위가 이곳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야인리는 마을회관을 모시방으로 만들어 부인들이 주야로 모여 모시를 하며 친목도 다지고 소득을 올린다.

마을에는 도충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도충사에는 최치원(崔致遠)과 최청(崔淸), 최몽량(崔夢亮) 등이 배향되어 있다. 도충사는 1897년 7월 처음 임천에 건립했으나 그 후 관리 소홀로 훼손된 것을 1980년대에 현 장소로 옮겨 다시 세운 사당이다.

최치원 선생은 신라 헌안왕 1년(857)에 출생하여 경문왕 9년(869)에 중국으로 유학하여 874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그곳에서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으며 그곳에서 쓴 토황소격문은 명문장으로 유명하다. 885년에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한림학사 등 여러 벼슬에 올랐으나 국정이 문란함을 통탄하고 외직으로 부성태수 등으로 활동하다 신세를 비판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최치원 선생은 경주 최씨의 시조이며 우리나라 유학의 대학자이다.

최청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신주 감은관을 역임하고 조선시대의 개국과 함께 전원에서 다시 나오지 않은 최치원의 11세손이다. 최몽량은 선조 28년(1595)에 출생하여 1612년 광해군 4년에 진사가 되고 1617년 문과에 급제 1625년 의주관관에 이르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 종현에서 독전 중 전사했다. 인조 11년(1633)에 영의정에 추정되고 충의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충신으로 명정되었다.

도충사 최몽량의 정문 아래칸에는 충복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이 초상화는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의주 관관으로 종현에서 독전 중 포로가 되었으나 적에게 굴복하지 않다가 살해된 몽량의 솔노 정복의 초상이다. 초상은 가로 97cm, 세로 108cm로 우측 하부가 부식되어 있다. 전립을 쓴 무복 차림으로 안장이 정제된 말고삐를 잡고 있는 입상 채화로 작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작 시기는 조선 인조 때 추정하고 있다.

도충사에는 최치원 외 27대손인 최덕기(1874~1929)가 쓴 일기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일기는 당시 동학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여사리(餘士里)

여사리는 여사지라고 하며, 백제 때 마산현이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 소속이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한산군에 속했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동강면의 지역으로 여사지, 여사제라 부르다 변하여 여수지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은곡리(恩谷里), 나교리(羅橋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여사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여사리 전경

여사리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양지뜸이라 부르며, 응달진 쪽에 있는 마을을 음지뜸이라 한다.

이강헌 효자비가 있는 곳에서 서남쪽에 있는 마을을 여사지(餘士池)라 부르는데, 마을 앞에 둘레가 1250자 깊이가 8자되는 못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그 못을 여수지라고 부른다.

마을에 전해져 오고 있는 전설을 소개하면, 현재 이 마을에는 큰 묘가 있는데 이는 신씨네 묘라 하며, 옛날 이 마을에 신씨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망해서 떠나고 한집도 없다고 한다.

이는 옛날 신씨들이 모여 놓고 있는 앞으로 스님이 지나가는데 신씨들이 이 스님에게 못되게 굴며 잡아다 끓여 앗혀 놓고 놀렸는데 말을 시켜보니 말도 잘하고 박식하여 신씨들이 산소를 옮기기 위해 스님에게 장소를 물어 좋다고 하는 곳으로 산소를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전에 있던 자리는 소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형국으로 명당자리였으나 옮긴 후에 망했다고 한다.

그 후 신씨들이 어렵게 되자 비석을 팔았는데 그 비석이 월성산 너머로 팔려갔으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며, 후세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당시 지나가는 스님에게 못되게 굴은 죄 값을 톡톡히 치렀다고 말하는 내용의 전설이다.

마을에 있는 효자 이강헌의 비는 높이 110cm, 폭 40cm, 두께 20cm로 경자 3월에 세워졌다고 돼있다.

이강헌은 부모를 섬김에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절도와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는데 게으른 적이 없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돌아와서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병환에는 근심을 다하여 병환을 완쾌하도록 했다 한다. 또한 부친께서 게를 좋아해 사시사철 게가 끓이지 않도록 하였다 한다. 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드려 3일의 목숨을 연장케 하고 돌아가실 때 예를 다하였으며, 며느리도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남편의 병환에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변을 맞

보고 증세를 경험하며 별에게 축원하여 남편의 목숨을 연장케 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교리(羅橋里)



나교리 전경

서천군이 92년도에 장수마을로 선정한 나교리는 당시 65세 노인이 20.6%를 차지하고 있어 군내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0%가 넘는 밀양 박씨 집성촌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나교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는 한산군에 속했으며, 월성산(月城山)을 주산으로 하고 지산(枝山)을 후록으로 한 이 지역에는 풍취나대(風吹羅帶)라는 명당이 있다 하여 나대리라 부르다가 조선 말에는 한산군 동산면에 속했었다.

후에 나다리, 나교리라고도 부르게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은곡리, 동지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나교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예부터 감나무가 많아 감나뭇골이라 불렀다 하며, 남쪽에 자리 잡은 마을을 나다리라고 해서 옛날에 도승이 이곳을 지나치며 훗날에 이곳에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일제 말 덕취지(德就池)가 생김에 따라 그 도승의 말이 맞았다는 설이 있다.

또한 마을에 월성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교 되고 초등학교들의 수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곳 학생들은 한산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고 있다.

학교 건물의 뒤쪽으로 월성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산에 비치는 달빛이 중국의 월성산을 연상할 만큼 수려하여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밀양 박씨가 이 마을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박수영 씨가 이 마을에 처음 와서 살기 시작 하면서부터였는데, 현재 11대손까지 아무 탈 없이 번창하고 있다.

마을 동산에는 닭이 알을 품은 형태를 이룬 선조의 묘지가 있는데 40여 그루의 노송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고 있다. 이 소나무는 일제시대 배를 만들기 위해 베어 가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몸으로 때우고 지킨 나무들이라는데 두어 그루가 고사된 채 서 있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씨족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서로 믿고 의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화합

하여 단결이 잘되고 있다.

이 마을에 있는 열녀 박후진 처 김해 김씨 정려문은 1894년 3월에 건립되었고, 박노환 씨 소유로 되어 있다.

박후진의 처 김해 김씨는 17세의 어린나이에 박씨 집에 출가하여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다가 시부모가 세상을 뜨자 극진히 3년 상을 치렀다.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던 남편마저 병석에 눕게 되자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찾아가 약을 구하여 치료하였으나 병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마침내 아내의 정성도 아랑곳없이 결국 남편이 사망하자 그는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하려는 순간 주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시부모와 남편의 오랜 병환으로 가세가 더욱 빈곤했으나 어린 자식을 훌륭히 키웠으며, 남편이 사망한 같은 달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다 한다.

- 동지리(冬至里)

동지리는 동지 1, 2리와 토산 등 3개 마을로 나뉘어지며, 백제 때와 신라 때 마산현이었고, 고려 때는 한산현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 13년에는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산의 가지가 동쪽으로 뻗은 곳에 마을이 있다 해서 동지매 또는 동지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토산리를 합하여 동지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에 고무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모양이 고무래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고무래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마을을 동지매라 하고, 양지쪽 마을을 양지편,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래뜸, 서북쪽의 읍지에 있는 마을을 읍지편이라고 한다.

읍지편 서북쪽 마을을 당골이라고 하는데, 마을에 신당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양지편 동남쪽으로 있는 마을을 토산이라고 부르며, 툄피라고도 하는데, 월성산(月城山)의 으뜸봉우리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자락에 자리 잡은 지역이다.

금강 너머에서 바라보면 옥토끼가 월성산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는 형국이라 한다. 옥토망월(玉口望月)의 형상이라 토정 이지함이 이 지방을 지나가다 산형이 옥토끼 같다 하여 토산, 토기피라고 부르게 하였다 하는데, 그 후 변해서 툄피라고도 부른다.

동지2리에는 3백여 년 가까이 되는 정자나무 9그루가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다 죽고 한 그루만 남았으며, 동지의 앞들은 침수가 잘되어 수확이 적었으나 80년대 경지정리하면서 하천을 정리하여 침수피해가 적어 부촌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부터 단정이, 동지리 등이 물이 좋아 소곡주 제조를 많이 했었다.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효자 이학직 정려비각은 1926년 건립되었으며, 한산 이씨 문중 소유이다.

이학직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을 듣더니 아버지의 병환에 백방으로 약을 구해 간 호하고, 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었다.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드리니 어린 여동생이 옆에서 보고 또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목숨을 연장케 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데 유감이 없도록 하는가 하면 제사를 정결하게 모셔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단상리(丹上里)

단상리에는 옛날 면이 있던 터가 있는데, 조선시대 동상면이 있던 자리이며, 1914년 한산면에 편입됨에 따라 없어졌다고 한다.

이곳을 단정이라고 하는데, 단산(丹山) 아래에 자리 잡고 대숲이 많다 해서 죽림이라고도 부르는 마을이다.

단상리는 백제 때와 신라시대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산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단정이 위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위 단정이, 또는 상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단상리, 단서리, 갈마리 일부를 합하여 단상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단정이 서쪽으로 방죽이 있는데 이 방죽을 행기너머 방죽이라고 부른다. 방죽이 한길너머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그 방죽이 있는 들을 행길너머들이라고 한다.

단정이 앞에는 큰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크다 해서 한다리 라고 부르며, 그 앞에 있는 논을 짝논이라고 하는데 논이 둘 있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논 모양이 뱀을 닮았다 해서 배암논이라고 부르는 논도 있다.

대곶안 동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젓국샘이라고 하며, 또는 ‘충생이열구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골짜기에 약수터가 있다.

대곶 안 뒤로 산속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셋대배기라고 한다. 옛날 속병을 앓고 약을 찾아 헤매는 한 아낙네가 여기에 와서 이 물을 마시고 병이 완치되자 그 아낙네의 부군이 이 샘 근처에 솥대를 세워놓았다 한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솥대에 기도를 드려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솥대가 박혀있던 샘이라 해서 솥대배기라고 불렀다 한다.

대곶 안 서쪽 터를 솔탕너머라고 부르는데, 소나무 정자가 서있었던 터라 하며 송정(松亭)이라고도 한다.

건너말 앞에는 성황당이 있어 서낭당이라고 하며,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처럼 여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가정 또는 마을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이곳을 찾아 정성을 들였다 한다.

단정 동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을 새터라고 부르며 신기라고도 한다.

건너말 뒤로 있는 고개를 비석재라고 하는데, 고개에 비석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들 가운데 외따로 있는 산을 똑매, 똑매, 독산이라고 한다.

단정이 동쪽으로 있는 숲을 대나무가 많다 해서 대숲이라 했고, 북개산 산정에 당터가 있는데 옛날에 이곳 사람들이 정성껏 모시던 신당터가 있었다 하며, 대곶안 북쪽 골짜기를 서낭당이 있었다 해서 당골이라 한다.

또한 단정이 뒤에 있는 산을 단상이라 하며, 산의 흙이 붉어서 적산(赤山)이라고도 하고, 대곶안 서쪽 구석마을을 구역뜸이라 부른다. 건너 마을을 단서리라고도 하며, 단서 서낭당이 있었고 절굴이라는 곳에는 절이 있었다 한다.

이 마을에는 ‘단정이 절개나무’ 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한산면 단상리 대나무가 우거져 있었다는 대곶안 마을에 들러 북쪽을 바라보면 고개가 있다. 이 고개를 당골 또는 당곡이라고 부르며, 골짜기에 오르면 서낭당이 있었고, 대나무 숲에 가려졌으나 우뚝 솟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를 절개나무라고 불렀다.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넋을 달래기 위해 자주 찾았다는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은 남편의 혼령과 상면하였다는 얘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전설이 서려 있다.

조선시대 이야기라 전한다. 어려서부터 곧은 선비 집안에서 자란 윤씨는 나씨 집안에 출가하여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 나갔다. 어른들의 덕택으로 한문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쳤던 그녀는 역시 선비집안에서 자란 낭군인 나씨와 글공부를 같이 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어린 조카를 내쫓아 죽음에 몰아넣고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가 어수선할 때 나씨는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의논하여 어린 임금을 구하려다가 그만 새로 왕을 들어왔던 힘 있는 자의 비족들에게 끌려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윤씨는 낭군이 죽음을 당하여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느꼈으나 시신을 묻을 때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굳게 다짐했다. ‘선비는 신의에 살아야지.’ 그녀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당시의 조정 관리들에게 본때를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낭군이 죽은 후 상복을 한시도 벗지 않았다.

하루는 깊은 밤에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가 앉아서 눈을 붙이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낭군이 산신령과 어느 호젓한 대나무 밭을 헤치고 와서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바둑을 두는 것이었다. 틀림없는 그녀의 낭군이였다. 그래서 그녀는 ‘여보’하고 불렀다. 꿈속에서 낭군이 자기를 바라보는 동시에 낭군의 품으로 달려가는데 잠이 깨었다. 그녀는 괴이한 꿈이라 생각하고 이튿날 아침 대밭을 찾으려 낭군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산 땅의 대밭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곳에 이르러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대밭과 느티나무를 발견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다음날부터 서낭당에 올라 산신께 정성을 바치기 시작했다. 깊은 밤에도 찾아와서 촛불을 켜놓고 저승에서 사는 낭군의 편안함과 낭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대나무밭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꿈쩍하지 않고 보통 때는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던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리며 몇날 며칠 동안 정성을 들었다.

바람이 찬 겨울이 오고, 들에는 눈이 쌓였으나 흰 소복차림의 그녀는 예전처럼 지극하게 정성을 드리고 있었다. 몹시도 추운 그날 대나무 숲이 흔들리면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니 그녀 앞으로 낭군이 웃으면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보’하며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산신령이 나무위에 내려와 길을 막고 “대체 무슨 일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가. 선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지는 건가. 낭군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혼령을 달래줘야 할 게 아닌가”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윤씨는 “이렇게 산신령님께 축원을 드리는 것은 다 제 낭군을 위한 일입니다.”

“허허 무슨 소린고, 칼에는 칼, 창에는 창이 있어야 하는 법, 이렇게도 모를까. 원한을 달래는 길은 그 방법뿐이야 혼령을 좀 쉬게 해줘야지.” 산신령은 이 말을 남기고는 낭군의 팔을 끌고 사라졌다. 사라지는 산신령과 낭군을 바라보고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복수를 해야지. 산신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녀는 그 길로 집에 내려와서는 여장을 준비하고 이튿날 집을 떠나 한양에 올라갔다. 한양에 올라가서 낭군을 죽인 비족의 우두머리가 수레를 타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는 것을 보며 울분을 겨우 참았다. 그녀는 한양에서 임금님이 충청도에 있는 온천으로 행차한다는 소문을 듣고 성환역에서 기다렸다.

드디어 온양으로 행차할 때에 미리 써둔 상소문을 나졸들의 물리침을 뿌리치고 임금님께 올렸다. 임금님께 호소하여 낭군을 죽인 비족들을 잡아다가 낭군에게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 모두 저자에서

능지처참의 형벌을 받게 하였다.

낭군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한 윤씨는 그 길로 돌아와서 서낭당 느티나무를 찾았다. 한밤중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갔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여보’ 낭군이 부르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눈을 떴다. 그녀 앞에는 무릎을 꿇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북받치는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서 ‘여보, 여보’하고 무릎 속에 파고 들었다.

‘이제야 제대로 상봉을 하는군. 하하’하는 산신령의 소리가 들렸으나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조금 전까지 같이 있던 낭군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산신령이 정해주는 날에는 서낭당 나무 아래서 저승의 낭군과 정겨운 상봉을 나누다가 그녀도 여생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한 여인이 이 나무에 지성을 바치고 절개를 지켰다 하여 이 나무를 절개나무라 불렀다 한다.

단상리에 있는 효자 노경인 열녀 노격처 박씨 정려문은 1688년 건립되었고 노성래 씨 소유로 되어 있다.

박씨는 노격의 처이고 경인은 그 아들로 정유왜변에 부자고부(父子姑婦)가 남포의 마이산 아래로 피난을 가다가 왜적을 만나 남편이 대항하여 굴복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니 박씨 또한 남편의 뒤를 따랐으며 아들 경인도 물에 뛰어 들어가 죽었다.

경인의 처 임씨(林氏)는 등에 3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어 수풀로 도망가 후손을 잇게 하였으니 아버지는 충으로 죽고, 처는烈로 죽고, 자식은孝로 죽어 그 물을 삼강연(三綱淵)이라고 하고 그 봉우리를 삼강대(三綱臺)라 이름 지었다 한다.

또한 이 마을에는 효자 유재환 정려문이 있는데, 정려문은 1868년 세워졌고 전주 유씨 문중 소유이다.

유재환은 어려서 지극한 성품과 돈독한 행실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며 몸소 농사지어 봉양하며, 부친의 병환이 위독할 때 잉어가 약이 된다고 하는데 마침 가뭄으로 시냇물이 고갈되어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니 잉어 한 마리가 뛰어 나와 잡아 공양하여 병환이 나았으며, 어머니 병환에 꿩이 가장 좋다고 하였으나 구할 도리가 없는데 꿩이 날아 들어와 잡아서 공양하여 병환이 완쾌되었으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멀고 가까운 벗들이 ‘하늘이 낸 효자’라 칭송하여 소문이 널리 퍼져 철종이 듣고 1854년 갑인 4월에 정려를 명하고 겸하여 조봉대부 동몽교관을 내려 효행을 표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상리 전경

- 단하리(丹下里)

단하리는 아래 단정이라고 부르는 곳과 하단, 단하 등으로 불린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에는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에는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서 단정이 아래쪽이 되므로 단하, 하단이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단중리, 갈마리 일부를 합하여 단하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대춧나무골이라 부르는 북쪽에 위치한 마을을 장중이라 하는데, 여러 마을의 중심부분이라 해서 한산군 시절 표준을 잡아 그렇게 불렀다 하며, 장중 동쪽 마을은 비탈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작은비탈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잘비탈이라 한다 하며, 잘비탈 사이에는 자락비탈이라는 산이 있다.

장중 뒤에 있는 산을 와재라 하는데, 산봉우리가 왕(王)자 모양이라 하며 일국을 호령하는 영주(領主)나 선비가 나올 형국이라는 풍수설이 따른 산이다.

벗말 앞에는 논이 있는데, 오씨가 처음 논을 일구어 경작했다 해서 이 논을 오가논이라 부르며, 한양고라실 아래 논을 섬처럼 생겼다 해서 섬배기라 부른다.

오가논 뒤로 마을이 있는데, 별판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벗말, 또는 별망이라고 부른다.

오가논 뒤로 마을이 있는데, 대추나무가 많다고 해서 대추나뭇골이라 하며 벗말 옆 동쪽에 있는 들을 한양고라실이라고 하는데, 이는 들 모양이 한양에 있는 한 들판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마량리(馬楊里)

한산에서 동남쪽 넓은 단하평야를 끼고 군도 6호선을 따라 3km 쯤 가다보면 도로 왼쪽 언덕배기에 아담한 마량 감리교회가 보이고 100m 쯤 더 가면 마량리 입구 표지판이 보인다.

마량은 넓은 상촌뜰과 단하들이 앞뒤에 펼쳐져 있고, 마을 뒤로 야트막한 뒤평산과 쪽쪽골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아늑하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이고,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에는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에는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녹양리(綠楊里), 갈마리(渴馬里)와 동상면 상동리(上東里) 각 일부를 합하여 마량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갈마매가 중심이 되는 마량리는 지금부터 5백여 년 전 역마부가 이곳을 지나는데 말이 목이 타서 신음하므로 마을에 가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한발이 심한 때라 물이 없어 결국 그 말은 죽었는데, 그 후 밤이 되면 목이 타서 죽은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다. 이로 인해 마을 아낙네들이 갈마라고 부르던 것이 마을 지명이 되었다고 하며, 갈마리 등으로 불렸다.

갈마매 옆으로 자리한 마을을 누에머리라고 부르는데, 마을 지형이 누에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잠두리라고도 한다.

누에머리 남쪽으로 있는 마을을 안산매라 하는데, 마을 안쪽으로 오붓하게 자리해 있다 해서 안산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녹양티는 갈마매 옆에 자리 잡은 마을로 녹양리라고도 부르며, 마을에 옛날에는 푸른 나뭇가지가 많이 늘어져 있어서 한층 마을을 아름답게 해주었다 한다.

누에머리 남쪽에 자리한 마을을 강성구레, 또는 강성이라 부르며 옛날 지관이 마을을 지나다가 하는 말이 땅 위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으나 땅 속에서 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 앞으로 큰 고을이 될 지형이라고 했다 한다.

마량리는 갈마매, 속뜸, 녹양티, 누에머리, 안산매, 강성구레, 골때기 등 7개 뜸으로 구성되어 1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호나 되었으며, 한산 이씨 집성촌 이다.

마을에 1934년 문을 연 연봉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한산초등학교와 통합되고 빈 건물만 남아있다.



마량리 전경

- 온동리 (溫洞里)

온동리는 자연마을 온수골, 기실매, 하수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수골의 유래는 옛날부터 온수가 나오는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렸고 한동안 그로 인한 개발지역으로 주목되고 있었으며, 기실매는 왕제산 아래 산과 들과 물이 좋아 3년 고생 끝에 낙을 가져온다는 마을로 살기 좋은 산수지라 하여 기산(箕山)이라고도 부른다.

온동리는 백제시대와 신라시대에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다. 1413

년에는 한산군 소속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더운샘이 있었다 해서 온수굴 또는 온수동이라 하였다. 그 후 변하여 온수굴 또는 온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온동리라 하여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온수동과 기실매 사이에 있는 고개를 삼년고개라고 부르는데, 그에 따른 유래가 있다. 한집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한다. 온수동에서 곱게 자란 색시가 시집을 가서 3년 만에 돌아올 때는 재산집 며느리처럼 넘어온 고개라 해서 그때부터 3년 고개라고 불렀다 한다.

온동리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고생대에 속하는 편암류, 중생대 쥐라기에 속하는 편마암 및 백악기에 속하는 석록암과 맥암이 분포되어 있으며, 온수동을 중심으로 왕제산 동북부와 온수동 도로부근의 염기성 맥암의 접촉부 및 설록암과의 접촉부가 지온의 증가가 기대되어 온천 부존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온천개발연구가 이천훈 씨의 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 온천이 나올 것이라고 관심 있는 국내 지질학 권위자는 물론 불란서 신부, 중국인 등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지난 1989년 7월 민간인 사업자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해 시추한 결과 보유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온천 개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를 보면 수온은 섭씨 26도8분으로 충분(25도만 돼도 온천개발가능)하였으나 매장량이 부족하다는 판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아쉬움을 남겼다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위치를 잘못 잡아 정통 수맥을 찾지 못한 듯 하다며 온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991년도 대전에 사는 모 유력인사는 100% 장담하고 다시 시추를 시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협상했으며, 될 수 있으면 많은 개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5만평을 개발지역으로 묶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일이 있다.

온수에 따른 전설을 보면, 마을 앞 왕제산 물탕에 어느 날 난데없는 사인교가 오더니 귀부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며칠 묶고 갔으며, 불치병이라 불리던 나병환자가 이곳에 와서 몸을 씻고 가면 씻은 듯이 나왔다 하여 많은 나병환자들이 드나들었다 한다. 이를 마을 주민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 우물을 메워버려 지금은 자취가 없다고 전한다.



온동리 전경

화양면 남성리에 살던 故권택식 씨 살아있을 적 꿈에 장소까지 현몽하여 200m쯤 시추19(83년)하다 중단된 것이 최초의 시추였으며, 지금껏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부동산업자들이 들락거렸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결과가 없어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연봉리(蓮峰里)

낙락장송이 어우러진 낮은 동산 주변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연봉리는 북촌, 하계동, 교항 등의 마을로 구성된 비교적 큰 마을이다.

연봉리는 백제시대와 신라시대에는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에 소속되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한산군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연봉오리처럼 생겼다 하여 연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동리, 하서면과 상동리 일부, 동상면의 녹양리 일부를 합하여 연봉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북촌은 다리목 서쪽마을로 북아시라고도 부르는데, 북쪽에 있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하며, 남쪽에 있는 하계동은 아래쪽에 마을이 있다 해서 생긴 이름이다. 교항은 다리목이라고도 하며 다리 근처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연봉리에는 연화정수형(蓮花淨水形)의 명당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형이 연봉오리처럼 생겼다하여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한산 이씨 한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여 가난하지만 선비답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시주를 얻으러 온 노승에게 끼니를 대접했다. 밥을 먹은 노승이 하는 말이 이곳에 선영을 모시면 자손이 크게 번창 할 것이며, 또한 명예를 얻고 씨족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함으로 그 노승이 가르쳐 주는 곳에 선영을 모셔 크게 번창 하였다 한다.

하계동 남쪽을 칠백냥들이라 부르는데, 옛날부터 땅을 잘 가꾸면 곡식이 잘 될 들이라서 칠백냥을 주고서도 아깝지 않은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하계동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당산제라고 부른다.



연봉리 전경

-용산리(龍山里)

용산리는 금강을 굽어보며 자리 잡은 마을로 용산과 화곡으로 나누어진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이었으며,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는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신후리(新厚里), 화산리(花山里), 용두리(龍頭里) 일부를 합하여 용산이라 했다.

꽃피 북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용머리라고 부르며, 이는 마을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용머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을 화산이라 부르며 꽃피라고도 하는데, 작은 산이 뒤에 있는 마을로 이곳 어부들은 한산매라고도 한다.

금강에서 범선을 타고 낚시질을 하며 이쪽을 바라보면 마치 작은 산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마을이라 해서 화산, 꽃피, 화산매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며, 이 말이 변하여 화살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강을 굽어보며 자리 잡은 용산은 후케, 갱변, 중머리 등으로 구성되고 화곡은 화산예, 끝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꽃피 앞에 질편한 들을 밀집바탕이라고 부르며, 옛날 이 마을은 포구로서 새우젓과 뱀어잡이 배가 철마다 밀려 큰 시장이 형성되었었고, 전국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꽃피 동쪽에는 통심이배미라는 논 위에 적은보통(소보), 큰보통(대보)의 흔적은 없어지고, 꽃피 남쪽에 있는 마을 후케(후보)에서 마을까지 넓은 들에서는 옛날의 뱃노래소리는 들을 수 없다.

꽃피 중턱에는 용왕단이 있었고, 꽃피 꼭대기 봉황산에는 산제당인 당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용왕과 산신을 위한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삼국사기 제사조에도 용왕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명산과 큰 냇가를 찾아 용왕과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마을의 무사태평을 비는 제사를 마을단위는 물론 나라에서도 지냈다. 특히 가뭄이 심할 때는 고을 수령이 기우단에 나가 기우제를 지내고 민심을 수습하기도 했었다. 서천군내에도 봉황산의 용두산 기우단을 비롯하여 열 한곳의 기우단이 있어 수령이 행차하여 돼지를 잡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이곳에서 고을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남녀노소를 불러 위로했다. 마을 백성들은 나무를 한 짐씩 갖고 와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함께 놀았다.

조선팔도 명산대천 자리 잡아
산신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사실과 금주은병 차려놓고
금년에도 용산마을 무사태평
남녀노소 모두모여 무병장수
산신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년에도 풍년들어 세세년년
복된 터전 이루도록 비나이다
라고 빌며 즐겼다 한다.

특히 이곳은 명산으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제당 즉 당집이 있고 마을의 태평과 풍어를 비는 용당이 함께 자리 잡고 있던 곳이다. 산신제는 정월 초사흘날 지내게 되는데 제관은 선달 보름날 마을회의에서 덕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제물은 마을에서 추렴하여 만들어 지내

는데 산신제의 절차는 유교식 제례와 비슷했으나 소지(소원을 적은 백지)를 올리며 기원하였다.

산신제는 마을의 신으로 숭앙하며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 가축의 무병을 비는 공동체의식이었다. 제가 끝나면 차린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고 덕담을 나누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다.

용당에서의 당제는 열나흘날 지냈으며, 풍어를 비는 의식이 행해졌다. 따라서 이곳 봉황산은 산신당과 용당이 함께한 유일한 신령산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스러운 산을 지키기 위해 봉황산 북쪽 중턱에 장수가 살았다는 바위에는 장수가 바위 속에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칼을 꽂았다는 칼 꽂은 흔적이 세 군데나 있으며, 백제 말 당나라 군사가 이곳을 침범했을 때 싸웠다는 전장곳과, 싸우다가 잠시 오줌을 누었다는 곳이 지금까지 꽤여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으며, 이 물이 마르면 큰 흉년이 든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곳 구멍에 든 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해 농사의 흥풍을 가늠하기도 했다 한다.

장수는 밤낮없이 쳐들어오는 당나라군을 무찌르고 또 무찔렀으나 물밀 듯이 쳐들어오는 군사들은 길을 바꾸어 백제의 도읍지 사비성을 함락하고 항복을 시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세상이 혼미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홀연히 굴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에는 장수가 나타나 왜구를 물리쳐 이 고장에는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았다고도 한다. 일제시대에도 군수가 직접 이곳에 나와 기우제를 지냈었다. 세월이 흘러 금강물을 굽어보는 이곳 봉황산 용당과 산신당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때를 회상하듯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며 어릴 적 동무들과 함께 놀던 장수바위가 계속 크다고 말하고 있다.

-신성리(新城里)



신성리 전경

신성리 갈대밭은 최근 영화 'JSA'촬영과 TV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촬영지로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연봉초등학교를 지나 넓은 들녘을 가로질러 곧게 난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왼쪽으로 들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도로가 끝나는 강변에 넓은 갈대밭이 펼쳐져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갈대밭에는 약간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갈대숲으로 들어가 강변에 이르며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신성리갈대밭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성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 소속이었고,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1413년 조선 초기 한산군이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동상면의 지역으로 금강에 새로 나루터를 만들고 이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신성개 또는 신성포, 신성리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두리 일부와 임천군 홍산면의 포촌리(浦村里), 교항리(橋項里), 고읍리(古邑里) 일부를 합하여 신성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곰개나루 서북쪽 마을을 신성포라고 하며, 남동쪽에 있는 금강나루터를 곰개나루라고 한다. 이는 전북 익산군 웅포면(곰개)으로 건너다니던 곳이다.

지난 1993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1천4백만원의 기금을 받아 마을 주변 하천 개거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목은 이색 선생이 읊은 한산팔경 중의 하나가 진포귀범(鎭浦歸帆)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진포는 장항에서 임천까지로 그 위치가 막연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속칭 곰개나루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한산면 신성리에서 전북 익산군 웅포로 건너다니는 금강변의 포구로 추측하고 있다.

이곳에서 치러진 전쟁을 진포해전이라 하는데, 그 기록을 더듬어 보면 고려 말기 1380년(우왕 6) 8월 왜구는 군선 5백 척의 대규모 전단을 이끌고 충청, 전라지역을 노략질하기 위해 금강을 거슬러 와서는 진포 앞바다에서 진을 쳤다.

왜구들은 군선을 해안에 정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금강에 직선으로 배를 정착시키고 일제히 쳐들어 왔다. 왜구가 대 선단으로 침입해 오자 우리나라에서는 화포의 명수인 최무선 장군에게 화포로 격멸할 것을 명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화포의 사용에 따른 기초 단계라서 적의 침범에서 군사의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화력의 화포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진포에 왜구가 나타나자 조정에서는 신덕부를 도원수로, 나세를 상원수, 그리고 최무선을 부원수로 명하여 급히 서해로 내려와서 금강하류인 장암포에 진을 쳤다. 왜구들이 노략질을 시작하려고 서서히 육지로 올라 갈 채비를 할 때였다. 최무선 장군은 수군으로 하여금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하고 결사대 수십 명을 인솔하여 해안으로 바짝 올라와서는 야음을 틈타 일제히 적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는 화약의 불꽃은 어둠을 가르고 적선에 명중했으며, 갑자기 불세례를 받은 적선이 타오르는 모습은 인군을 대낮같이 밝히며 이수라장을 만들었다.

금강하구에서 거슬러 올라오던 우리 수군은 가까스로 뗏목을 타고 도망치는 왜구를 한명도 남김 없이 모두 전멸시켰으니 이 해전이 바로 진포해전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처음으로 화약을 써서 적을 섬멸한 싸움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지금은 도도히 흐르는 금강물 위에 햇빛이 눈부시고 알맞게 부는 바람결에 갈대가 나부껴 한 폭의 그림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옛날 이곳에서 해군들이 왜적과 싸우며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다.



신성리 갈대밭

- 구동리(九洞里)

일광산 끝자락 우묵한 곳에 다복하게 자리 잡은 구동리는 주로 구슬다리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1992년과 93년에 2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될 만큼 평화로운 마을이다.

백제 때 마산현 지역이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 소속이었고,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산군이었는데 조선 말 한산군 동하면으로 구실, 구실다리 또는 구수동, 구동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노샛굴, 생인새, 일광리를 합하여 구동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따라 한산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구동 서쪽 옆에 있는 지역을 옛날에는 일광이라 했는데 그곳에 일광사라는 절이 있었다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구수동, 구수골, 구동이라 하는데, 풍수설에 의하면 영병도강형(領兵渡江形)이라는 지형으로 장수가 많은 군졸을 이끌고 아홉 개의 우물이 뻗뻗하도록 진을 치고 자리한 지형이라 구수동(九水洞), 구수골이라고 부르다가 구동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연봉으로 가는 곳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이 돌다리를 구슬다리라고 불렀다 하며, 이는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 20m 되는 돌다리였었다 한다.

많은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보러 갈 때 이 다리를 건너면 재수가 있다 해서 이 다리를 건너 한양으로 올라갔으며, 시집가는 색시들도 이 다리로 가마를 타고 건너면 잘 살게 된다 해서 인근에서는 꼭꼭 건너게 했다는 다리라 한다. 그 후 이 다리는 다시 시멘트로 놓아져 현재 사용되고 있다.

옛날에 이 마을에 향현사(鄉賢祠)라는 사우가 있어 권변, 권성 등을 모셨으나 대원군 시절 훼손되어 영정만 모시다가 1968년 기산면 화산리에 영당을 건립하고 매년 춘추에 제향을 지낸다. 그 후 1993년 화산서원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사당을 신축했다.

일광 서쪽으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문턱바위라고 부른다. 이는 바위 모양이 꼭 문턱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008년 11월 28일 한산모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산모시방직사 생산 공장이 생산설비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구동리 전경

제7장 마산면(馬山面)

마산면은 서천군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일찍부터 인류가 정착한 곳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힘차게 일어났던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이다.

인근 부여군과 경계를 이루며, 구릉지가 발달하여 축산 및 임산물의 생산지이고 서남부로는 서천평야의 젖줄인 봉선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

작목재배의 적지로 시설하우스가 많고 젊은이들이 농가소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지난 1990년에는 서울신문사와 한국방송공사, 농림수산부가 공동 제정한 농어촌 청소년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마산면은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읍현(馬邑縣)에 속했고 고려 때는 한산현에 속했었다. 1165년(명종 5) 고려시대 감무를 두고 홍산까지 관할했으며, 뒤에 지한주사의 고을이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13) 한산군에 속하여 한산군의 북쪽에 위치했다 해서 하북면이라 칭하고 15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 면 통폐합 때 상북면의 16개 동리와 임천군 팔가면의 하수리 일부를 합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마산의 이름을 따서 마산면이라 하여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나궁, 군간, 관포, 지산, 벽오, 소야, 삼월, 신봉, 시선, 요곡, 마명, 신장, 가양, 안당의 14개리로 개편 관할 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기산면의 이사리와 한산면의 송림리를 편입하여 16개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위치는 동쪽으로 요곡리가 동경 126°497′, 서쪽으로 나궁리 노고단이 126°454′이며, 남쪽으로는 안당리가 북위 36°155′, 북쪽으로 나궁리 북단이 36°110′에 위치하며, 군간리가 면사무소가 있